

TV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나타나는 욕망 투쟁 양상 연구

송다영*, 이종훈**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교수

e-mail : mint.moskato@gmail.com*

leelim3@ddu.ac.kr**

A Study on the Desire Struggle in the TV drama <Sky Castle>

Da-Yeong Song*, Jong-Hoon Lee**

*Dept of Cultural Contents Planning, Dong-Kuk University

**Dept of Theater & Film, Daeduk University

요 약

TV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욕망을 보드리야르의 욕망이론에 입각하여 고찰해보았다.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욕망을 등장인물들이 쟁취해내려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욕망의 충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인간은 욕망하며 대상을 모방하는 동물이다. 인간의 욕망은 의·식·주의 생존이 보장되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계급을 나누었고, 타자와 자신을 구분 짓기 위해 자본시장을 구축하여 또 다른 계급층을 나누어 사치품을 모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고 있다.

욕망은 현실의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서 모방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함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인간의 욕망들이 문화콘텐츠의 유형 중에서 TV드라마 장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모방되어 재현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TV 드라마는 각 시대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모방한다.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욕망은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과 서사의 갈등의 지배소로서 작동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사물들을 그것들이 있어야 하는 대로 모방할 수 있다.”[1]1)고 말한다. 즉, 현실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어떤 이상을 자신 앞에 둘 수 있다는 것으로 단순한 모방, 즉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며, 본능의 만족은 즐거운 것’[2]이라고 주장한다. 모방은 지상에 사는 인간과 관계없는 관념의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특히 문학

에 있어서는 인간의 심성과 행위의 보편적인 양상을 제시하는 것[3]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욕망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TV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대학병원 의사들과 판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사는 유럽풍의 4층 석조 저택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망과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을 그린다.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쥐었음에도 3대째 의사 가문, 법조인 가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욕망에 충실한 어머니들의 필사의 몸부림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드라마이다. 드라마를 통해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풍자 지점들은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과열과 원인을 인간의 욕망에서 찾기 위해 보드리야르의 욕망이론을 대입하여 본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모든 것이 욕망이다(...) 욕망을 권력에의 욕망, 억압을 위한 욕망, 억압받기 위한 욕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 권력에의 욕망은 없다. 욕망이 권력이다.”[4] 들뢰즈의 말에 따르면 욕망은 목적성을 두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시대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결핍’과 ‘충족’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이어져 내

1) “작가는 언제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즉 사물들이 있었던 대로나 있는 대로, 또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또는 그것들이 있어야 하는 대로 모방해야 한다.”

려오고 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지배된다는 욕망의 타자성 2) 욕망은 미시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증식적이라는 충동적인 욕망 3)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과 파괴를 추구하는 욕망이 이원적이라는 욕망의 이중성을 설명하는데, 또한 주체가 욕망을 충족하는 양상에 따라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보드리야르는 위의 라캉의 개념들을 1) 욕망의 유동성, 2) 욕망의 충동성 3) 고통의 향유 등으로 단순화 시켰다.

보드리야르는 욕망의 유동성을 히스테리 증상과 비교한다. 욕망이 끝없이 이동한다는 특징이 히스테리 환자의 증상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사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히스테리 증상은 팔과 어깨, 다리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은 심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이동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 또한 그렇다. '영원히 충족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욕망'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욕망의 충동성은 예를 들면 정말로 필요해서 혹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참다가 결국 필요한 물건을 손에 넣고 마는 인간의 심리를 말할 수 있다. 원하는 물건을 얻게 되면 처음에 충동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충족될 것 같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토록 원했던 물건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는 것인가. '욕망은 합리적인 이유를 갖지 않고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충동은 너무나 간절해서 불일 수 있으면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이 갖다 붙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드리야르는 고통의 향유를 말하는데, 향유라는 의미는 쾌락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만족감과 구분되는데 아주 강한 쾌감이 동반되어야 향유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당하는데 도리어 쾌감을 느끼는 현상은 정신병환자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증상이라고 보드리야르는 말한다. 현대인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순적인 욕망이 나타나는데, 휴가철에 사람들로 붐비는 여행을 떠나거나, 원하는 핸드폰을 얻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굶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개념들을 종합하면,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속성, 원하는 것을 소유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속성, 소유를 위해 고통마저 향유하는 속성들을 통해 욕망의 근원은 '결핍'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의 근원인 결핍을 제 3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 결핍과 세 시선

3.1. 욕망의 원인 : 결핍

인간은 일생동안 다양한 형태의 결핍을 겪는다. 그리고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결핍은 그를 채워줄 대상을 향한 욕망을 낳는다. 결핍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며 혼란과 실의 속에 빠져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인간 내면의 심층을 들여다보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장을 열어 주기도 한다.[5]

표 1. TV드라마 <스카이크슬>의 등장인물이 지닌 결핍

등장인물	결핍의 유형
한서진	정육점을 운영하는 알콜중독자인 아버지 아래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풍족하게 살지 못했던 과거가 심리적 결핍으로 남아있다.
강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의 심리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에 꼭 진학해야만 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김주영	천재성을 지닌 딸이 정신착란을 일으키자 남편과의 불화 중 남편을 살해하고 채워지지 못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스카이크슬>의 주요 인물인 한서진과 강에서, 그리고 김주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핍의 유형을 나눠보았다.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결핍은 타자를 향해 욕망을 놓고 스스로를 피폐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한서진은 의사과장인 강준상과 결혼하여 1차적인 심리적 결핍이 채워진 것으로 보여졌으나 3대째 의사가문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목표를 부여받고 예서의 교육에 앞장선다.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는 인물이자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딸인 강에서에게 투영한다. 그러나 김주영이 과거와 현재에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안 한서진은 살인자에겐 자식을 맡길 수 없다 단언한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 다시 김주영의 손을 잡지만 양심과 근본적인 행복이 무엇인가 고찰하며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다.

강에서는 오이디푸스의 거울 단계에서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고3 수험생이다. 어린아이의 정서에 간혀 있으며 사회성이 발전되지 못한 상태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욕망을 대리 수행하는 인물로서 자신의 의대합격이라는 목적을 위해 김주영을 맹신하며 따른다. 자신의 코디네이터인 김주영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실력이 실제 실력이 아닌 것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에서는 김주영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다. 때문에 강에서는 한서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주영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주영과 애착관계가 깊어진 강에서는 결국 자신이 짝사랑하는 우주와 김주영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우주를 선택하고 이유도 모르고 공부를 하던 모습과 달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김주영은 한서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입시코디를 받은 학생들 및 부모들의 약점과 욕망을 건드리며 최고의

선생으로 추앙받지만 지워지지 않는 살인자라는 과거와 천재로 키우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딸을 둔 결핍을 타자의 몰락을 통해 채우고자 한다.

김주영은 강예서를 입시 학생으로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심을 산다. 그러나 한서진, 김보라(누구였지), 스카이크슬의 주요 인물들의 충돌과 강예서의 배신으로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 향한다. 또다른 결핍이 생겨났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야 결핍이 해소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3.2. 옛보기 : 라캉의 세가지 시선을 중심으로

라캉은 모방에 대하여 '진정한 모방이란 평면적 시각으로 옮아간 그림이 아니라 그 속에 위장과 변장으로 과장된 그 무엇이 있다'[6]고 말한다. 일차적인 자아는 또 다른 자아와 분열을 보이는데, 보여지고 있는 나를 보는 주체. 이 두개는 분리할 수 없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보기만 하는 시선(eye)이 아니라 보여짐(gaze)이 함께하는 중첩적인 것이다. '보여짐'을 강조하는 것이 라캉이 욕망하는 주체다. 상상계 못지않게 상징계를 강조하듯 그는 보여짐, 즉 '응시'가 대상을 허구화시키는 욕망의 동인(오브제 a)임을 보여준다. 데카르식 사유는 상상계적 사유요, 시선만 있을 뿐 눈만 사유라는 것이다.[7]

또한 라캉은 세 가지 시선 즉, 상호주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선, 첫째 시선이 못 보니 숨긴 게 드러나지 않으리라 믿는 시선, 그리고 앞의 두 시선이 숨기는데 실패한 이유를 알고 드러내놓는 게 숨기는 것임을 아는 시선을 말한다. 라캉은 이것을 타조의 정치학에 비유한다.[8] 첫 번째 타조는 얼굴을 숨긴 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며, 두 번째 타조는 첫 번째의 타조가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니 자신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세 번째 타조는 두 번째 타조의 꼬리털을 뽑아간다는 것으로 라캉은 설명하는데 <스카이크슬>의 인물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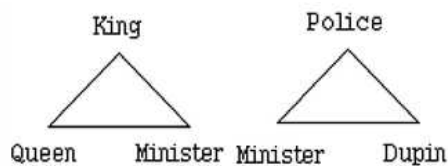


그림 1. 라캉의 삼각형 모형

한서진은 강예서를 서울 의대로 보내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과외선생을 알아보고 스터디 모임을 구축하는 자신의 모습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진진희가 두 번째 타조라고 할 수 있다. 한서진을 따라서 의대 진학에 필요한 족보를 얻기 위해 정성을 쏟는 진진희를 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 로스쿨에 두 아들을 진학시키려는 욕망에 가득한 노승혜의 존재가 세 번째 타조에 해당한다.

또 다른 구도로는 한서진, 강예서, 김주영이 있다. 강예서의 목적없는 욕망을 대입하는 한서진, 그리고 한서진의 숨겨져 있으나 드러나 있는 욕망을 촉발시키고 강화시키는 김주영의 관계가 얽히면서 세 인물이 지니고 있는 욕망들은 파국을 향해 간다.

5. 결론

TV드라마 <스카이크슬>에서도 인간의 욕망이 결핍과 충족 그리고 다시 결핍으로 되돌아오며 끝없는 고통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이 고통을 욕망의 크기로 본다면 의대에 보내고 싶은 욕망이 가족의 화합과 형제가 없는 욕망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서진, 강예서는 전자의 욕망을 선택하여 스스로 고통에 빠지게 된다. 두 욕망을 이루고 싶지만 모두 이룰 수 없는 상황일 때 더 큰 욕망을 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으로 작은 욕망을 잃어서 실망하거나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고통의 향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핍을 채움으로써 행복을 얻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과 욕망은 등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존재해야 한다. 타인의 행복을 존중해야만 개인의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TV드라마 <스카이크슬>은 욕망의 방향이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이 정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과 공감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TV드라마가 현대인의 삶을 모방하여 욕망의 실체를 풍자적으로 풀어내며 더 많은 고찰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가정해볼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1] 아리스토텔레스, 『창작술』, 25장 1460b 8-11
- [2]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연구』, 문학과 지성사, 2005
- [3]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13
- [4] 들뢰즈·가타리,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조한경 옮김, 문학과 지성사, p.106, 1992
- [6]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이미선·민승기 옮김, 문예출판사, 1994, p.32
- [7]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이미선·민승기 옮김, 문예출판사, 1994, 욕망이론 p.33
- [8]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이미선·민승기 옮김, 문예출판사, 1994, 욕망이론 27